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일은 성경적인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순례를 떠나기 때문에 가족은 그 기간 동안 동거하며 함께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함께 지내는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이 모습을 보배로운 기름과 혈몬산의 이슬에 비교하며 감탄합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1.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모습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며 감탄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대제사장인 아론이 위임식을 받았을 때 부쳐졌던 향기로운 기름, 아론의 머리와 수염을 넘어 옷깃까지 내려졌던 거룩한 기름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기름부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부여하시는 것이고, 이 기름부음을 통해 아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존귀하며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족 모두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2.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마치 북쪽의 높은 혈몬산으로부터 나와 성전이 있는 시온산 위에 내리는 이슬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 이슬이 땅 속으로 스며들 때 이스라엘은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풍족한 땅으로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되어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보배로운 기름과 혈몬의 이슬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자자손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설교자) /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자자손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추석
가정예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 같이

-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2) ----- 다 같이

인도자 :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가 족 :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인도자 :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가 족 :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도자 :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가 족 :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불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인도자 :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이다.

가 족 :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인도자 :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가 족 : 여호와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 여호와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성경말씀

시편 133:1~3

설교자

- 1 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 3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설 교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 ----- 설 교 자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 같이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축복 받으시요

